"템플스테이 이제는 고객만족도 신경 쓸 때"

외국인 비율 정체에 재참가 의사 10%대 사실 드러나

2002년 월드컵 당시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 문화자원화를 위해 도입된 템플스테이가 정체 현상에 직면한 가운데, 재참가율이 매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익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2월 6일 한국관광학회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국대에서 공동주최한 '韓스테이와 한류 식문화의 가치 조명' 세미나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 정체 및 외국인 비율 하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템플스테이의 지난 1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김창익 상무는 "이미 국내 대표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불교문화체험을 통한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2004년 4만명에서 2013년 19만명으로 지속 성장했으며, 2014년 누적인원이 12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하지만 2011년 이후 참가자가 정체되고 있으며, 외국인 참가자의 비중도 2010년 12%에서 매년 같은 수준으로 역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는 낮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장에서는 10% 정도를 재참가하는 이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참가한 이들을 관리하는 기반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김창익 삼일회계법인 상무 분석 공개
실무자 근속년수 낮아 전문성 떨어져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하락

김 상무는 이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상위사찰과 하위사찰 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상위 20개 사찰에 51% 인원이 몰리고, 역시 재참가 또한 이들 사찰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사찰 고유의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활용한 개성있는 특화프로그램의 운영을 비롯해 사찰별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 현황 (출처:삼익회계법인)

김 상무는 "현행 템플스테이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기본형과 불교문화체험형, 휴식형이 63.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다각화를 주문했다.

김상무는 이어 템플스테이의 운영인력의 낮은 근속기간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김 상무의 자료에 따르면 운영인력 중 지도법사 중 71%가 2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상 대부분이 일반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실무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년 이하 근속기간이 76%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상무는 "보통 주지스님 변경시 지도법사와 실무자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며, 역량에 대한 대우나 역량계발 기회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재 "템플스테이의 재원은 대부분 국고로 충당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참가자들의 재참가율 향상이 필요하다"며 "템플스테이는 2008년 서울관광대상 '최우수여행상품상', 2009년 OECD 선정 세계 5대 문화관광상품, 2010년 국가브랜드위 선정 '한국대표 10대 아이콘'으로 꼽혔지만,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학전공 첫 모집

동국대 평생교육원(원장 박경준)은 2월 27일까지 2015학년도 불교학 전공 학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학 전공과정은 주말특별과정(2년 15주, 주1회 토요일 진행), 주중 학년제 과정(3년, 주3회), 타전공학위과정(1년 15주, 주1회 토요일 진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와 연구경력 5년 이상 박사진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초기불교, 한국불교사 등 전공필수 7과목과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빨리어기초, 중국불교사 등 전공선택 25과목 등 33개 과목이 개설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기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자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02)2260-3730

노덕현 기자

고려고찰 '사뇌사' 연대 1035년으로 올라가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중인 '사뇌사' 연대가 적힌 청동 그릇

국립청주박물관은 1월 29일 1993년 청주시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을 재조사해 사뇌사 연대가 1035년이라고 밝혔다. 1993년 청주시 사직동 용화사 앞 무심천 주변에서는 480여점에 달하는 고려 시대 불교 관련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학계는 이 유물 가운데 124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청동금고에서 '사뇌사(思惱寺)'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고 1226년 사뇌사 하안거에서 설법을 한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행적이 기록된 문헌을 통해 '사뇌사' 터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학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물의 정확한 제작년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청주박물관은 2013년부터 재조사에 착수해 당시 발견됐던 유물 중 명문이 새겨진 16점에 대한 판독작업을 벌여 청동접시 1점에서 '太平十五年乙亥四月日造思內寺彌勒호(심방변+古)子入卜四兩一目'(태평 15년인 을해 4월일에 사내사 미륵전 호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 무게가 4량짜리 한 벌이다)라는 내용을 판독했다. 태평 15년은 1035년으로 연대가 더욱 올라간다.

국립청주박물관 측은 "'사뇌사'가 이전에는 '사내사'로 불렸으며 미륵전(또는 미륵불)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명희 학예연구사는 "앞으로 지역 불교사찰과 출토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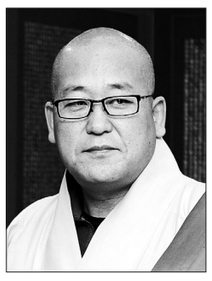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수륙재 간소화로 전통성 상실된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 원장 미등 스님, 고려대 논문에서 밝혀

진관사와 삼화사 수륙재 지정 후 세월호 수륙재 등 수륙재가 불교계 사회행사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전통성 보존에 대한 입장이 제기됐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미등 스님〈사진〉은 최근 고려대 박사논문으로 '한국수륙재의 의례와 설행양상'을 발표했다. 2월 6일 논문공개를 겸한 자리에서 미등스님은 "한국 수륙재의 경우 의례문의 계통분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단형태와 설행절차를 다루다 보니 의례 설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선시대 간행된 수륙의례문의 계통을 규명하는 한편, 한국 수륙재의 형태와 특징 등 정체성을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 스님에 따르면 한국 수륙재는 의례와 절차, 설단의 과정에서 중국 등의 수륙재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독특한 의식으로 가치가 높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퇴색되고 있다.

미등 스님은 "오늘날 수륙재에서는 풍백우사단이 설단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으며, 의례의 절차에서도 '시련'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설행시간도 근현대까지 밤 시간에 설행되던 수륙재가 오늘날에는 낮 시간에 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이어 조계종 출범 이후 60여 년 동안 의례의 전승에서 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륙재의 의식이 간소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등 스님은 이어 현대에 설행되는 수륙재의 분류를 △사찰 주관의 정기설행 수륙재 △불교종단 주관의 특수목적 비정기 수륙재 △특정 단체의 문화행사 일환 수륙재로 분류했다. 정기설행 수륙재로는 동해 삼화사, 서울 진관사, 마산 백운사의 수륙재가 꼽혔으며 비정기 수륙재로는 2013년 단양 방곡사와 대구 도림사에서 설행된 수륙재,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서울 조계사에서 설행된 수륙재를 예로 들었다.

이어 문화행사로의 수륙재는 전남 여수 진남제와 전남 영광 법성포단오제, 충남 부여 백제문화제 수륙재 등을 예로 들었다.

미등 스님은 "최근에는 수륙재가 문화콘텐츠로 자리하며 이면에 의례의 훼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철저한 의례의식에 대한 점검 만이 수륙재의 본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 차별, 정화운동 이전엔 없었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 일본의 비구니 종제 비교 분석해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위상을 비교해 비구니 권익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사진〉은 〈대각사상〉 22집에 실린 '근 · 현대기 한 · 일 비구니의 존재양상에 대한 시론적 고찰'에서 비구니계의 결집과 종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스님은 먼저 "해방 이후 정화운동 후 종헌 개정 과정에서 법계 승서에 단계별 고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승려법은 승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차별없는 법계제도였다"며 "하지만 통합종단이 형성되고 법계법이 들어서며 '비구니법계는 별정급이며 비구와의 서열은 율장에 의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승니의 법계와 칭호가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심지어 종단 원로 및 각 원장 자격은 '비구'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조선불교 종헌에는 볼 수 없는 승려차별이다"라며 "정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구니 측에 본사격인 동화사, 선암사, 개운사 주지를 발령했지만, 이는 잠시였다. 이후 94년 개혁 당시 비구니들이 불평등한 종단 제도 개선도 요구했지만 이유없이 외면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혜원 스님은 일본불교의 비구니 차별 철폐의 사례를 들었다. 스님에 따르면 일본불교계는 근대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자체 개혁을 단행한다. 1946년 종교법인령이 공포돼 승니 평등제도가 완전히 인정되고 차별이 철폐됐다. 이는 근대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확립요구와 지위향상을 위해 3회 열린 '전국니승대회'가 발단이었다.

혜원 스님은 "종령변화과정에서 한일 양국 비구니계는 불균등함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차이는 결속력과 공유된 각성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결과 율의에 의거한다는 팔경계가 보편의식으로 고착되고 구습의 차별의식이 잠재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혜원 스님은 끝으로 "비구니들은 종령에 대한 자각과 이를 개선시키는 결집력, 그리고 청원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비구니의 종단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질 수록 비구중심주의로 인한 문제점은 심각해지며, 이로인한 결과 또한 비구니계의 책임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 MOU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1월 21일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浙江省 社會科學院)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교류협정에서 절강성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향후 5년간 천태법화사상의 중심지인 중국 절강성 지역 불교의 과거와 현재 및 한중불교교류사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우선은 양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며, 양 연구소와 절강성 불교협회 등이 협력하여 절강성 불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제40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학회장 신규탁)는 4월 30일 출간 예정인 〈한국선학〉 제40호 원고를 모집한다.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까지다. 초과시 초과게재료가 부과되며 150매 이상시 게재가 불가하다. 접수는 3월 15일까지며 게재요령은 한국선학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논문투고 시스템 JAMS를 통하면 된다.

논문심사 및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 30만원, 일반논문은 전임 20만원, 비전임 10만원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